



김광현

SK-김광현 MLB행 첫 논의 1시간10분간 무슨 말 했나?

SK “구단 이기주의 버리고 결정할 것”
결론 못 내렸지만 한번 더 만남 계획

SK 와이번스 에이스 김광현(31)이 19일 소속팀과 본격적으로 메이저리그(MLB) 진출에 관해 심도 있는 면담을 진행했다. 손차훈 단장과 만나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MLB 진출 여부를 두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간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포스트 시즌을 마치고 김광현과 한차례 만남을 가졌던 SK는 “프리미어12에 집중하고 싶다”는 김광현의 뜻에 따라 대화를 마친 뒤에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대화를 준우승으로 끝낸 김광현은 18일 귀국했고, 19일 곧장 구단 사무실을 찾아 1시간 10여분에 걸쳐 긴 대화를 나눴다.

서로간의 속사정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것이 첫 단계였다. 김광현은 2016년 SK와 프리에이전트(FA) 4년 계약을 맺어 2021년까지 SK 선수 신분이다. MLB 진출을 위해선 구단의 승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2019시즌 통합우승을 놓친 SK 로선 팀의 핵심 전력을 쉽게 떠나보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19일 만난 손 단장은 “광현이는 팀의 주축 선수이자 구심점이다. 하지만 광현이의 꿈을 무시할 수도 없다”고 털어놨다. 이어 “구단의 전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FA 계약이 끝나기 전 해외에 진출하는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이라고 짚으며 “KBO리그의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구단의 상황을 광현이에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팬들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다”며 “구단의 이기주의를 떠나 팀과 개인, 팬까지 생각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SK는 최종 결정을 서둘러 계획이다. 김광현은 구단의 승인을 얻고 MLB 진출에 도전하는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 야마구치 순채팅 포스팅 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포스팅 시스템 신청 기한이 12월 5일까지라 일정이 넉넉하지 않다. 손 단장은 “큰 사안인 만큼 사장님을 비롯해 미팅을 많이 가져야 한다”면서도 “그래도 서둘러 빨리 결정해야한다.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광현와도 한번 더 만남 계획”이라고 했다. 인턴 |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0-26 대패에도 웃는 ‘중국의 행복야구’

웨일샤크, 합천 야로중과 친선경기
실수 연발에도 파이팅 외치며 뛰어



부산시 기장군이 주최하고 스포츠동아·㈜오투에스앤엠·부산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19 기장국제야구대축제’ 2일째 일정이 진행된 19일 기장군의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 제2보조구장.

그라운드엔 다소 생소한 유니폼을 입은 앳된 얼굴들이 보였다. 중국 칭다오에 있는 웨일샤크 야구단 소속 중학생 선수들이었다. 13명으로 구성된 웨일샤크는 경남 합천 야로중과 친선경기를 가졌다.

결과부터 말하면 웨일샤크의 0-26 대패. 6회까지 안타 없이 볼넷 2개를 얻어낸 게 전부였을 정도로 빈공에 시달렸고, 수비에선 실수를 연발했다. 포수가 투수에게 돌려주는 공은 2루수와 유격수를 향하기 일쑤였고, 상대의 평범한 뜬공은 안타로 둔갑했다. 땅볼에 이은 1루 송구조차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파울라인을 벗어나는 공에 미리 손을 대는 바람에 안타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야로중 선수들의 가족도 웨일샤크 선수들이 스트라이크와 아웃카운트를 잡아낼 때마다 박수를 보냈을 정도다. 감독이 연신 목청 높여 선수들을 격려하고, 세 차례 투수교체로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기본기가 탄탄한 야로중을 상대로 안타 하나를

뽑아내기도 버거웠다.

그러나 그 누구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다. 18일 오후 기장에 도착해 바로 다음날 경기를 치르는 다소 빡빡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라운드에서 마음껏 뛸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해했다. 타구와 투구 하나하나에 모든 열정을 실었다. 야로중 선수들도 진지하게 임했다.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코치진이 오히려 “플레이 하나하나 제대로 하라”고 선수들을 독려했다. 야로중 장인욱 감독은 “상대가 누구든 진지하게 경기에 임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도리”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 나선 중국 팀의 경기는 어렵게 기장을 찾은 선수들이 마음껏 그라운드에서 뛸 수 있도록 콜드게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칭다오를 비롯해 베이징과 텐진에서도 선수들을 파견했다. 첫 주자였던 웨일샤크가 별다른 힘조차 써보지 못하고 완패했지만, 경기 후에도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자오레이 단장은 “선수들이 정말 즐겁게 야구하고 있다. 기장의 멋진 야구장에서 뛸 수 있어서 기쁘다”며 팀의 엠블럼을 건네기도 했다. 단체사진을 찍을 때는 중학부 13명에 리틀야구팀 소속 17명 등 30명이 한데 모여 멋진 그림을 연출했는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야구 자체를 즐기는 학생들의 미소가 어우러져 보는 이들에게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같은 장소에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던 부산 센텀중 선수들도 파이팅을 외치며 힘을 실어줬다.

기장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2019 기장국제야구대축제’의 메인 프로그램 기장국제야구대회에는 해외 팀들도 참가해 의미를 높였다. 중국 칭다오 웨일샤크 야구단이 19일 야로중과 친선경기를 치른 뒤 한데 모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기장 | 김홍원 기자 won@donga.com

‘초대 챔피언’ 대동중, 포수 부상에 기권패 눈물

2회 박준하, 타자 스윙에 왼손 맞아

기장국제야구대회 중학부 초대 챔피언 부산 대동중이 첫판에서 뜻하지 않은 변수에 아쉬움을 삼켰다.

대동중은 19일 기장군의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 메인구장에서 열린 2019 기장국제야구대축제 메인프로그램 기장국제야구대회 예선 첫 경기에서 창원 신월중에 기권패했다.

대동중은 지난해 이 대회 결승에서 양산 원동중을 6-3으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한 팀. 이대호, 채태인(롯데 자이언츠) 등을 배출했다. 올해도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혔지만 첫판부터 주축 포수가 불의의 부상을 당한 탓에 경기를 온전히 치르지 못했다.

0-4로 끌려가던 2회초 포수 박준하가 상대 타자의 스윙에 왼손을 맞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타격방해 상황에서 예

기치 못한 부상을 당한 것이다. 대동중 김상재 감독을 비롯한 양 팀 코치진이 모두 달려나와 선수의 상태를 살폈고, 잠시 후 심판진이 경기 종료를 선언했다. 박준하는 왼손에 봉대를 감은 채 경기장을 떠났다. 현장에서 이 상황을 지켜본 관계자들은 “큰 부상이 아니어야 할 텐데”라고 우려했다.

심판조장은 “당장 포수로 뛸 수 있는 선수가 없어 경기를 못 하는 상황이라 기권패”라고 설명했다. 대동중과 마찬가지로 경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신월중 선수들은 자체 책병전을 소화하며 컨디션

을 조절했다. 대동중은 박준하의 정밀검진 결과에 따라 남은 일정 소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정이다. 과연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가 찾아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기장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 주최: 기장군
- 주관: 스포츠동아 (주)오투에스앤엠 부산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장군의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선동열부터 김광현까지…꿈을 좇아 떠난 특급 에이스들

정민태 등 친정팀에 막대한 수익 안겨
삼성은 이적료 없이 오승환 내보내줘

에이스 투수들의 승부욕과 자존감은 상상 그 이상이다. 대부분 초등학교 때부터 팀의 기둥이었다. 고교시절 자신의 어깨에 친구들의 대학 진학이 걸려있었다. 자신만 믿고 있는 동료들의 기대 속에 마운드를 지켰다. 프로에서도 성공했다. ‘내 공이 최고’는 자신감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성취다. 최고의 선수들만 보이는 프로야구 1군 리그에서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눈은 해외로 향한다. 다른 투수가 해외에서 승승장구한다면 그 욕구는 더 커진다.

김광현(31)이 메이저리그 도전을 위한



선동열

류현진

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그 결정권을 갖고 있는 SK 와이번스 경영진과 감독은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 있다.

KBO리그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선동열 전 대표팀 감독은 1995시즌 후 소속 팀 해태 타이거즈에 해외진출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미 1993년부터 일본 구단은 선동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비공식 접촉에 ‘국보유출시도’라는 제목의

신문기사가 나올 정도였다.

1995시즌 후 해태는 에이스의 해외 진출을 고심하다 팬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까지 한 후 결단을 내렸다. 당시 메이저리그도 관심을 보였지만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주니치 드래건스는 파격적인 임대료를 제시했다. 결국 2년 3억 엔의 임대 조건으로 주니치 유니폼을 입었다.

선동열의 일본 진출에는 1994년 박찬호라는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그 탄생이 큰 자극제가 됐다. 해태는 2년 후 또 한번 대형 임대계약, 그리고 1999년 완전 트레이드로 5억 엔을 요구하기도 했다. 선동열이 은퇴를 결심한 배경이었다. 에이스를 떠나 보내겠지만 끝까지 이득을 취하겠다는 욕심이 깔려 있었다.

이후 2000년 한화 이글스 정민철(현 한화 단장), 2001년 현대 유니콘스 정민태(현 한화 코치)가 요미우리에 입대했다. 정민태의 이적료는 무려 5억 엔이었다. 당시 현대를 지휘했던 김재박 전 감독은 “에이스의 빈 자리가 참 컸지만 이적료는 어려웠던 구단 살림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기억했다. 선동열, 정민철, 정민태 모두 구단이 팀에 우승컵을 안긴 에이스의 해외 진출 열망을 받아들이면서 막대한 수입을 함께 올린 사례였다.

삼성 라이온즈의 2013년 결정은 결이 달랐다. 2011~2013 3년 연속 통합 우승을 달성한 삼성은 시즌 후 팀 전력의 핵심이었던 불펜 에이스 오승환을 일본 한신 타이거즈로 트레이드했다. 이적료는 한신이 예우를 담아 책정한 5000만 엔이었다. 삼성이 요구한 이적료는 없었다. 일본을 거쳐 미국까지 가고 싶다는 오승환의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서였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